

# 각국의 결핵관리 프로그램

## 편집부

### 1. 베닌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베닌은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에서 추천한 항결핵관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1984년 이후 리팜피신과 피라지나미드 처방을 포함한 단기치료처방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의료진들의 철저한 관리로 70% 이상의 치료성공률을 보였으며 연간 감염위험률은 0.51%이다.

14년이 지난 오늘날 다제내성결핵균의 출현으로 전세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1994년과 95년 조사 결과 베닌에서는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에 0.3%, 이소니아지드에 5.1%, 리팜피신에는 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관리가 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인구증가, 도시화, 고위험 특정집단과 HIV의 만연 등으로 신환자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 2. 중국의 수도-베이징

베이징은 10,800km<sup>2</sup>의 면적에 천 구십

만명의 인가로 구성된 중국의 수도이다. 베이징 결핵관리팀은 DOTS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치료율은 91%에 달하며 연간감염위험률은 0.20%, 1996년 초화내성률 조사결과에 의하면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 양제에 1.3%, 이소니아지드 6.7%, 리팜피신에 2.7%가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베이징의 결핵관리와 관련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돌출되었다.

첫째는 타 지방에서 결핵균을 가진 사람들의 일시적인 유입인데 그 수는 3백5십만명에 달한다. 1993년 신환자등록율이 15%인데 비해 '95년에는 28%로 증가했다. 이런 거주자들은 잦은 이동으로 결핵관리가 어렵다. 환자의 54%가 치료 실패자이며, 6개월치료후 단지 25.5%만이 완치되었다.

두번째는 HIV감염이다.

베이징에서 HIV감염자는 1985년에 처음 보고 되었다. 지금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양성을 나타낸 사람은 122명으로 보고 되고 앞으로 HIV문제가 결핵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  
 1978년 이후 베이징에서는  
 도말양성환자가 항결핵약제를 구입하도록  
 결핵관리 프로그램  
 특별 기금을 제공해 왔다.  
 ■

요 현안과제이다.

1978년 이후 다음과 같은 현대의료에 기초한 새로운 결핵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 1) 감염원 관리
- 2) 도말양성환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
- 3) 지방 의료서비스 확대-양성환자에 대한 감독관리는 1985년에 63%에서 1990년 대에는 90%를 훨씬 넘었다. 1988년 이후 6개월 단기치료처방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베이징에서의 결핵감염원 관리에 있어서 그간의 결핵관리 경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978년 이후 베이징에서는 도말양성인 사람들이 항결핵약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결핵관리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기금을 제공해 왔다.

-의사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공중보건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범적으로 각 시·도에 시범센터를 설립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도출한다.

-지방에서의 일차보건의료시스템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러한 시스템과 연계하여 결핵관리를 실시한다.

### 3. 쿠바

쿠바는 1959년부터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으로 결핵관리를 시작하였으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결핵환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1963년 수직적인 국가결핵관리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일차보건의료 시스템과 연계되어 수행되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1971년 모든 환자에 대한 직접감시처방의 도입과 1982년 리팜피신 약제가 포함된 처방도입이다.

이러한 변화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연계 등은 65년부터 91년까지 결핵신환자 발생률을 연 5%수준으로 감소시켰다.

9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치료율은 92%이며 96년도 초회내성률은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 양제에 0.7%, 이소니아지드 1.8%, 리팜피신 1.2%를 나타냈다.

'91년과 '94년 사이에 다소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감염률이 낮은 지역에서 의 질병으로 인한 의사진단 지연으로 주로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증가했다. '94년부터 '97년까지 이러한 원인이 확인되고 시정할 결과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